



#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러 농업부, 올해 곡물 수확량 예상치 하향 조정
- 이슈페이퍼
  - 국제교통회랑 개발을 통한 러·중간의 협력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러시아와 중국, 하바롭스크와 흑룡강 성을 잇는 “Far East-1” 공동 개발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결정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독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압박
  - St. Petersburg 항 커뮤니티,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Vladimir Rusanov호, 북극 항로 첫 운항
  - 러 석탄 처리기업 자유항 입주로 극동항만 석탄공급 본격화 전망
- 주요 통계
  - 2017년/2018년 1분기 극동지역 교역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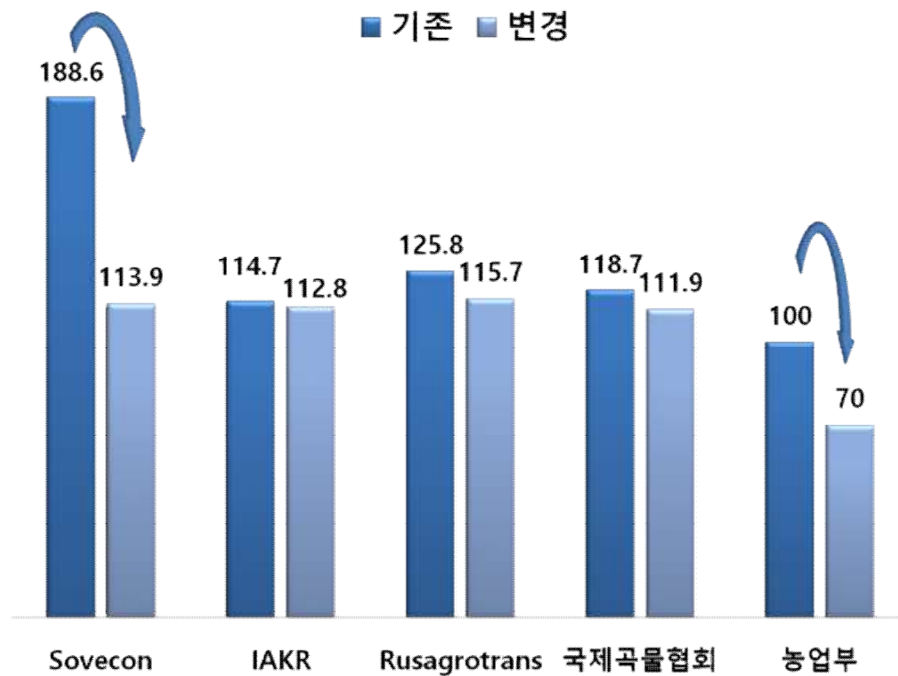


## 통계로 본 이슈

### 러 농업부, 올해 곡물 수확량 예상치 하향 조정

기관별 2018년 예상 곡물 수확량

(단위: 백만 톤)



자료: <http://www.rusagrotrans.ru>(검색일: 2018년 7월 17일)

- 러시아 농업 컨설팅업체인 'Sovekon'은 연초 곡물 수확량이 약 1억9천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약 1억1천만 톤)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농업시장연구소(IKAR)는 연초 약 1억1천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약1억3천만 톤으로, 그리고 'Rusagrotrans'는 1억3천만 톤에서 1억2천만 톤으로 예상치를 낮췄음
  - 러시아 농업부 또한 연초 1억 톤으로 예상했던 곡물 수확량을 7천만 톤으로 하향



### 조정했음

- 러시아 각 기관은 밀의 생산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Sovecon'은 7,200만 톤에서 6,900만 톤으로, 농업시장연구소는 7,150만 톤에서 7,080만 톤으로, 'Rusagrotrans'는 7,700만 톤에서 7,140만 톤으로 하향조정했음
- 보리와 옥수수로의 작목전환으로 밀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Povoljie' 지역 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곡물 수출량 또한 재조정되어 'IKAR'는 4,320만 톤에서 4,100만 톤으로, 밀 수출량을 3,300만 톤에서 3,250만 톤으로 변경했음
  - 반면 2018-2019년 세계 밀 소비량은 늘어 전년대비 1.2% 증가한 약 7억5천만 톤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novosti/vazhnoe/51916-prognozy-sbora-zerna-v-rossii-snizheny/>((검색일: 2018년 7월 17일))  
<http://www.rusagrotrans.ru/press/mneniya-ekspertov/eksperty-snizhayut-prognozy-sbora-zerna-v-rf-v-2018-g-iz-za-zasukhi/>((검색일: 2018년 7월 17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 이슈페이퍼

### 국제교통회랑 개발을 통한 러·중간의 협력

-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회랑은 극동러시아의 교통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 운송 경로임
  - 국제교통회랑은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개발시 주변국과의 외교 및 국경 간 협력을 필요로 함
  - 러시아 정부의 국제교통회랑 주요 개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국제교통회랑 주변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화물운송 효율성 증대, 운송 위험 및 비용 감소, 화물 안전, 도착일 준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그리고 화물운송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 및 개발, 처리물동량 증대, 현대화된 물류센터 건설, 행정적 장벽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
- 인프라 현대화 및 개발의 경우 러시아 연방 국경교차점 등의 도로 및 철도 개발, 항만 처리능력 증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7년 6월 ‘태평양 벌크 터미널’사는 연해주 하산지역에 환적 터미널 건설을 착수함
  - 이는 국제교통회랑 인프라 개발의 일부로 새로운 환적 터미널을 건설하여 극동지역에서 벌크화물을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해짐<sup>1)</sup>
- 행정적 장벽을 감소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운송화물의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중국 정부와는 협약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1) <https://minvr.ru/press-center/news/5680/>(검색일 2017년 6월 27일)



## 극동지역 국제교통회랑 지도



자료: <https://minvr.ru/activity/infrastrukturnoe-razvitie-regionov/>(검색일: 2018년 7월 4일)

- 2017년 극동개발부는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의 운송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함
  - 수입화물 중 극동항만을 통과하는 화물에 한해 국경을 지난 후 통관절차가 이루어짐
  - 이같은 운송 메커니즘을 통해 ‘프리모리예-1’의 경우 최대 13시간, ‘프리모리예-2’는 약 4~5시간 이하로 운송시간이 단축됨
  - 즉 국제교통회랑의 운송은 약 24시간 이내 이루어지게 됨<sup>2)</sup>
- 연해주 주지사 안드레이 타라센코(Andrei Tarasenko)씨는 국제교통회랑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약 5년 단축돼 2025년에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함<sup>3)</sup>
  - 또한 2030년 이후 국제교통회랑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2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극동개발부는 국제교통회랑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호 경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2) <https://minvr.ru/press-center/news/5015/>(검색일: 2017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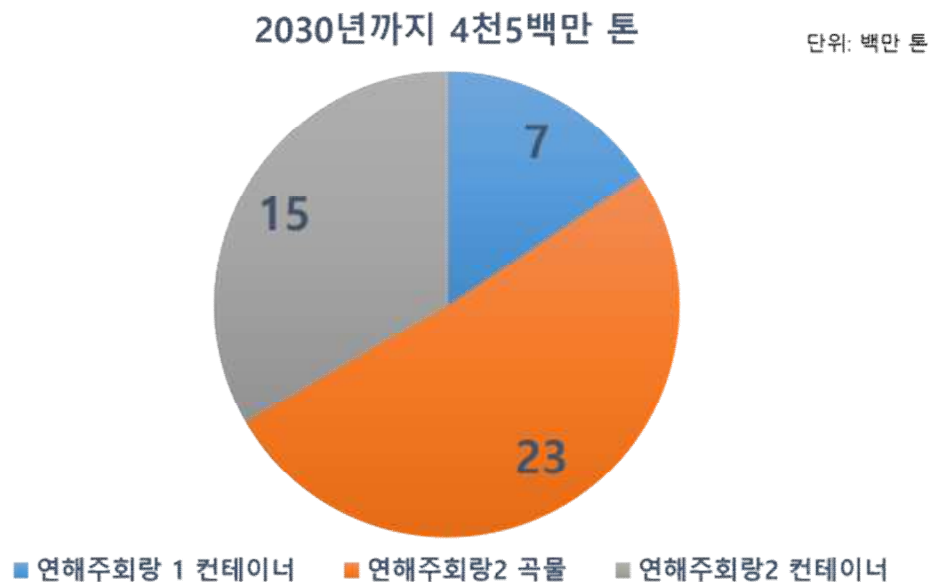
3) [https://minvr.ru/press-center/news/12887/?sphrase\\_id=383340](https://minvr.ru/press-center/news/12887/?sphrase_id=383340)(검색일: 2018년 7월 4일)



주며 연해주 지역경제가 약 4~5%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sup>4)</sup>

- 2030년까지 국제교통회랑의 잠재적인 물동량은 약 4,500만 톤으로 예상됨
  - '프리모리에-1'의 경우 약 700만 톤의 컨테이너 화물이 '프리모리에-2'의 경우 곡물 화물 약 2,300만 톤, 컨테이너 화물 약 1,500만 톤이 잠재적 물동량임
  - 이와 같은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를 개발해야 하며 또한 극동러시아 항만의 환적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함

2030년까지 국제교통회랑 추정 물동량



자료: <https://minvr.ru/activity/infrastrukturnoe-razvitie-regionov/>(검색일: 2018년 7월 4일)

- 현재 국제교통회랑 개발을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 6월 국제교통회랑 공동 관리기업 설립을 논의함
  - 또한 2017년 7월 본 회랑의 개발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 통신건설 회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td)가 교통회

4) [http://logirus.ru/news/transport/vlozhenie\\_v\\_mtk\\_primorya\\_milliony\\_rubley\\_prinesut\\_milliony\\_tonn\\_gruzov.html?sphrase\\_id=111686](http://logirus.ru/news/transport/vlozhenie_v_mtk_primorya_milliony_rubley_prinesut_milliony_tonn_gruzov.html?sphrase_id=111686)(검색일: 2017년 11월 2일)





량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에 합의함<sup>5)</sup>

- 현재 중국은 극동지역에서 약 2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총 투자금액은 약 40억 달러로 향후 중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교통회랑 개발협력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9월에 개최될 극동경제포럼에서 '중국 통신건설 회사'의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 교통부와 중국은 국제교통회랑 공동개발 협상을 준비 중임<sup>6)</sup>

■ 참고자료 : <https://minvr.ru/activity/infrastrukturnoe-razvitie-regionov/>(검색일: 2018년 7월 4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5) <https://minvr.ru/press-center/news/15182/>(검색일: 2018년 4월 28일)

6) [https://minvr.ru/press-center/news/15023/?sphrase\\_id=482691](https://minvr.ru/press-center/news/15023/?sphrase_id=482691)(검색일: 2018년 7월 9일)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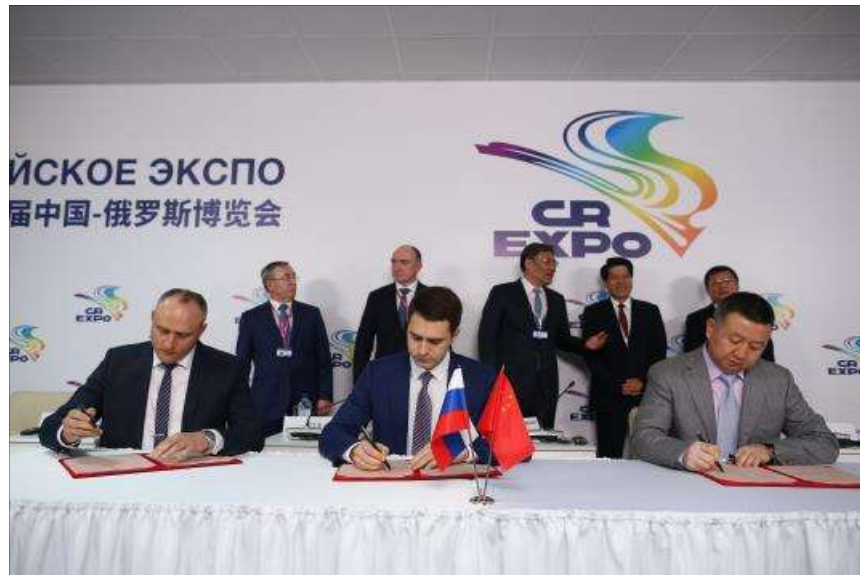
### 러시아와 중국, 하바롭스크와 흑룡강 성을 잇는 “Far East-1” 공동 개발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결정

- INNOPROM-2018 국제 무역 박람회(러시아 개최)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중국 북동부 흑룡강 성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잇는 통합 운송로 ‘Far East-1’ 공동 개발 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러시아 극동투자수출기구와 영토농업기금(자치 비영리 단체), 중국 동진그룹에 의해 서명
  -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미화 1억 2천만 달러





러·중 Far East-1 공동 개발 협약 (at INNOPROM-2018)



자료: <https://eng.minvr.ru/press-center/news/16863/> (검색일: 2018년 7월 12일)

- 향후 세부 필요 사안 준비 및 2018년 말 공사 개시 예정
  - 하바롭스크 시에 연간 40만 톤의 농산물 환적 처리 가능한 항만 건설 예정
  - 하바롭스크 영토 내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1만 헥타르 농지 도입 및 상시 10만 톤의 농산물 저장 가능한 인프라 조성 등 농업 클러스터 개발에 대해서도 합의
  - 중국 동진그룹은 이미 하바롭스크 영토 내에서 재배 면적 약 3만 헥타르의 곡물과 유채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투자 규모는 미화 3천만 달러 수준
  - 러시아 극동투자수출기구 총책임자 Leonid Petukhov씨는, 이번 'Far East-1'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하바롭스크 영토를 중심으로 시행될 것이며, 참가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

■ 참고자료 : <https://eng.minvr.ru/press-center/news/16863/> (검색일: 2018년 7월 12일)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독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독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거듭 압박을 가함
  - 독일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자국에서 지출하는 낮은 NATO 국방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그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14년 NATO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합의했지만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1.24% 수준이며, 2024년까지 1.5%로 증가시킬 계획임
  - 반면 미국은 GDP의 3.5% 수준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들 역시 합의된 수준의 2배인 4%를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현재 러시아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



에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함

- 또한 미국은 독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데 반해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더 부자로 만드는 행동만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침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sup>7)</sup>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독일은 실제로 러시아의 가장 큰 가스 수출시장이며, 현재 진행 중인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 의존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 프로젝트가 완공될 시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량은 약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서, 러시아 우수트라가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 독일 북동부 그라이프스발트까지 연결될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가스관 기착지인 독일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유럽 각국에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현황



자료: <https://www.washingtonpost.com>(검색일: 2018년 7월 14일)

- 메르켈 총재는 독일이 러시아에 사로 잡혔다는 트럼프의 비난에 대해 자신이 자국의 의존도를 판단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함을 표명함

■ 참고자료 : <https://edition.cnn.com/2018/07/11/politics/trump-defense-spending/index.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8/07/11/the-russian-pipeline-to-germany-that-trump-is-so-mad-about-explained/?utm\\_term=.e1619c5fee57](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8/07/11/the-russian-pipeline-to-germany-that-trump-is-so-mad-about-explained/?utm_term=.e1619c5fee57)(검색일: 2018년 7월 11일), <https://www.dw.com/en/german-government-feuds-over-military-spending-increases-after-nato-summit/a-44669756>(검색일: 2018년 7월 14일),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 St. Petersburg 항 커뮤니티,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러시아 St. Petersburg 항만의 새로운 커뮤니티는 항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화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커뮤니티는 항만 내 주요 하역서비스 회사와 포워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Russia Federal Anti-Monopoly Service(FSA Russia)와 Federal Customs Service(FCA)가 승인한 단체임
  - 이들은 러시아 북서 지역 통과 화물의 운송비를 최소 10%에서 최대 1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새로운 커뮤니티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 및 핀란드 코트카(Kotka) 항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부적절한 관료주의 행태를 개선해 운영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커뮤니티 최초 창립자인 Kovalev씨에 따르면 화주와 포워더가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의 관료주의적 행태 및 관세행정원의 부적절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시급한 이슈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 화주연합(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은 관료의 부적절한 요구 및 규제 등이 St. Petersburg 항을 비롯한 러시아 주요 항만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함
  - 또한 The Russian Association of Commercial Seaports(FACS) 분석결과, 관료주의 문제가 운영비용의 7~17% 증가시킴
- 항만의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IT 시스템을 통관수속 절차에 도입하고자 함
  - 커뮤니티는 통관수속 절차를 기존 문서기반(paper-based)에서 IT 시스템으로 전환해 모든 화주 및 운송회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화물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함



- 현행 시스템 하에서 수입 컨테이너 통관처리(clearance time)는 3-6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IT 시스템 도입으로 2-4일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https://www.joc.com/port-news/european-ports/new-st-petersburg-groups-goal-cut-shipper-costs-speed-customs\\_20180621.html](https://www.joc.com/port-news/european-ports/new-st-petersburg-groups-goal-cut-shipper-costs-speed-customs_20180621.html)(검색일: 2018년 7월 17일)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 *Vladimir Rusanov*호, 북극 항로 첫 운항

- 일본 해운사 MOL(Mitsui OSK Lines)과 중국 해운사 China COSCO Shipping 이 공동 소유한 쇠빙 LNG 수송선 처음으로 *Vladimir Rusanov*호가 지난달 러시아 사베타(Sabetta)항을 출항해 북극 항로를 운항 중임
  - 동 쇠빙 LNG 수송선은 '18년 3월 서쪽 항로(유럽)로 첫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Vladimir Rusanov*호는 야말(Yamal) LNG 프로젝트를 위해 발주된 선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MOL社와 COSCO社로 인도 예정인 3척 중 첫 번째 선박임
  - 야말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 노바텍(Novatek)社, 프랑스 토탈(Total)社, 중국 CNPC社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등 세계적인 자원개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 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임



Vladimir Rusanov호



자료: www.ajot.com(검색일: 2018년 7월 6일)

- 동 쇄빙 LNG 수송선은 야말 반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운반할 예정이며, 쇄빙 기능과 LNG 운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
  - 동절기에는 북극 항로 이용이 불가해 서쪽 항로를 향해 유럽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하절기에 북극 항로를 거쳐 아시아 지역으로 운항됨
- 북극 항로 운항은 운송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천연 에너지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vladimir-rusanov-completes-first-northern-sea-route-transit#gs.kM9qBm4 (검색일: 2018년 7월 6일)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 러 석탄 처리기업 자유항 입주로 극동항만 석탄공급 본격화 전망

- 석탄을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입주하며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부두에서 석탄 보관 및 단순 선적했던 기존의 극동항만의 석탄 공급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음
- 최근 극동개발공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인 코울 트레이딩(Coal Trading Co.,Ltd)은 석탄을 작은 크기로 분쇄해 분류하는 자동처리 및 포장라인을 구축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힘



- 투자가 완료되면 그동안 석탄부두로 활용 시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환경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과거와 같이 극동항만을 통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석탄수출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코울 트레이딩(Coal Trading Co.,Ltd)은 초기 단계에서 전체 생산능력의 25%를 가동할 계획임
- 이어 매월 1,500톤까지 석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며 기계화 공정으로 셋팅되는 석탄 분쇄·분류 라인을 활용해 매년 10%씩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임

참고자료 : <https://www.eastrussia.ru/news/pererabatyvat-ugol-dlya-dalneg-o-vostoka-korei-i-yaponii-nachal-rezident-spv/> (검색일: 2018년 7월 16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 주요 통계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2017년/2018년 1분기 극동지역 교역량 (단위: 천 달러)

지역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
----	--	-----------	-----------	-------------------------------



극동지역	교역량	6,078,129.3	6,140,715.9	101.0
	수출	4,888,562.6	4,840,635.7	99.0
	수입	1,189,566.7	1,300,080.2	109.3
아무르주	교역량	94,848.5	168,920.8	178.1
	수출	51,893.1	94,365.4	181.8
	수입	42,955.4	74,555.4	173.6
유대인자치주	교역량	28,970.2	52,493.1	181.2
	수출	22,289.3	46,041.5	206.6
	수입	6,680.9	6,451.6	96.6
캄차트카	교역량	171,887.7	160,747.8	93.5
	수출	156,810.2	152,196.9	97.1
	수입	15,077.5	8,550.9	56.7
마가단	교역량	84,758.9	84,541.3	99.7
	수출	66,291.4	72,056.5	108.7
	수입	18,467.5	12,484.8	67.6
연해주	교역량	1,316,953.1	1,665,975.0	126.5
	수출	583,189.3	768,593.0	131.8
	수입	733,763.8	897,381.9	122.3
사하공화국	교역량	1,487,195.7	1,561,662.6	105.0
	수출	1,473,971.8	1,509,175.9	102.4
	수입	13,223.9	52,486.7	396.9
사할린주	교역량	2,459,850.2	1,925,065.1	78.3
	수출	2,204,534.7	1,801,610.6	81.7
	수입	255,315.5	123,454.5	48.4
하바롭스크주	교역량	424,964.1	515,052.8	121.2
	수출	329,582.6	396,462.1	120.3
	수입	95,381.5	118,590.7	124.3
추코트카주	교역량	8,700.8	6,257.5	71.9
	수출	0.2	133.8	61078.1
	수입	8,700.6	6,123.7	70.4



---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검색일: 2018년 7월 17일)

주: 빨간색: 감소, 파란색: 증가